

전남 해안·섬 국립공원 숙박시설 짓는다

내년부터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숙박시설 허용

지리산·설악산 등 케이블카 설치도 가능해져

내년부터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과 한려해상국립공원을 비롯해 전국의 해안과 섬 지역 국립공원에 관광객이 밤에 묵고 갈 수 있는 여관과 관광호텔이 들어선다.

환경부는 해안과 섬을 포함하는 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에 내년 1월부터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법령이 개정되면 다도해해상 국립공원과 한려해상국립공원, 변산 반도국립공원, 태안해안국립공원 일부 지역의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

인다.

자연환경지구는 국립공원 안의 '1

급 지역'인 자연보존지구를 둘러싸고 완충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 해상 국립공원의 경우 자연환경지구가 대부분

분을 차지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립공원 섬 지역 대부분은 탐방객이 묵고 갈 수 있는 시설이 거의 없었고 이 같은 규제가 불합리하다는 지역의 민원도 있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해안과 섬을 포함하는 국립공원 자연보존지구에서 케이블카 설치 허용 기준을 2km에서 5km로 늘리는 방안도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했다.

이는 노약자와 장애인의 요구가 부각되고 기술발전으로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는 공법도 개발됨에 따라 설악산과 지리산 같은 깊은 산에 케이블카를 놓을 근거를 마련하려는 조

발아 추가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환경부는 공원탐방시설 설치·운영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을 의뢰해 오는 11월까지 입지적성 평가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여 케이블카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 개별 사인을 두고 국립공원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선별적으로 건설을 허락할 것"이라며 "주봉(主峰)을 피해 산의 '어깨'까지만 올라가도록 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다도해 공원 지역에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됨에 따라 섬지역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총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치다.

법령은 오는 7월 공포·시행되지만 케이블카 건설은 경관·생태에 대한 개별 현황에 대한 심의가 이뤄진 뒤에 허가를 거쳐뤄지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여 케이블카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 개별 사인을 두고 국립공원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선별적으로 건설을 허락할 것"이라며 "주봉(主峰)을 피해 산의 '어깨'까지만 올라가도록 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다도해 공원 지역에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됨에 따라 섬지역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총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市, 도시 계획 전문가 초청
매달 두 차례씩 목요 강좌

광주시가 올 연말까지 매달 두 차례씩 모두 15차례에 걸쳐 국내 도시 계획 전문가를 초청, 시·구 공무원 등 관련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목요 강좌를 개설한다.

3일 시에 따르면 도시계획 전문가 초청 목요강좌는 도시공간구조, 경

축, 교통, 환경, 문화 등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주제발표 및 토론 등으로 이뤄진다. 오는 7일 서울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부 김재영 교수가 '기후변화·지구온난화'를 주제로 첫 강좌에 나서며, 죄영 국토연구원 교수의 '지단소와 도시계획', 서인원 대구경북발전연구원 박사의 '대도시 수변공간의 선진사례' 등 각 전문가들이 매주 주제를 바꿔 강의한다.

/문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국민 만족

- 김종우



입이 열개라도 할말 없다

광고접수안내
구직·문화·교육·초청·업무·제작
등
▶ e-mail : dd8111@hanmail.net
▶ 전화 : (062) 227-9600
▶ 팩스 : (062) 227-9500

임야금매
전남 나주 낭평을 노동리 산 72
6800坪 도로접합
→ 매각 1억
☎ 016-249-8656

한정승인공고

광 흥순(280310-1867411)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에 따른 재권자에 대한 공고, 한정승인(재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에 관한 민법 제109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광고 일로부터 2개월내에 재권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사건 번호 : 광주지법률부록제2009년 202
공고 고 인 : 김은애, 흥경자, 흥재자, 흥경희, 흥진희, 흥평자, 흥길자, 흥경임, 흥평임, 흥근자, 흥신자
한정승인수리일 : 2009. 4. 22
공고기간 : 2009. 5. 5 ~ 2009. 7. 4
연락처 : 광주광역시 서구 홍정동 410
우편번호 : 101동 171호
집찰은 : (010)-2038-4686

분묘개장·공고(2차)

광주광역시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한 공고와 같이 본문기장을 공고하고자 하니 다음과 같이 본문기장을 공고하고자 한다.
1. 분묘소개지 및 기수
- 분묘소개지 : 광주광역시 서구 홍정동 410
- 기수 : 15개월
2. 기관수 : 도시계획시설현대화사업
3. 현지기간 : 죽초·공모로부터 5개월
4. 개장방법 : 광고기간 만료 후 일정개정기준 후 통장당선후
5. 개장장소 : 인력·기념·봉안장
6. 인체기간 : 10년
7. 소유 및 관리처 : (유)코파데기업 임대(011-611-4414)
8. 신고자 구체서류 : 현지기밀현대화사업
9. 기타 : 신기자 내의 사용이 불편하거나 누군가에게 거슬리거나 불편한 경우에 대해서도 광고를 금지함
2009. 4. 1
(유)코파데기업

사원모집

- 모집부문**
 - 예약실, 식음료파트
- 담당업무**
 - 예약업무, 식음료파트(웨이케리스)
- 모집인원**
 - 예약실(여) 00명
 - 웨이케리스 00명
- 자격요건**
 - 학력, 학과(무관)
 - 경력 및 신입
- 전형방법**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서류심사 합격자 한해서 개별통보)
-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 mannerwang@hanmail.net
- 급여**
 - 면접시 협의
- 근무조건**
 - 4대보험, 기숙사, 우수사원표창,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 경조금, 의료비지원, 학자금지원
- 기타사항**
 - 담당자 최 관식
 - 061)320-7716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돈 없어 학업포기’ 대학생 사라진다

‘돈 없어 학업포기’ 대학생 사라진다

전남도의회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 마련

대학 등록금의 과도한 부담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학업을 포기해야 할 처지에 놓인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교육 기회를 제공해주는 조례안이 마련됐다.

전남도의회는 4일 제24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민주노동당 고승자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의결했다.

조례안은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범위, 지원 시기·방법 등을 전남지사가 지원 계획을 수립해 추진도록 했으며 대출 납융을 막기 위해 '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토록 했다.

이 조례안의 제정으로 저소득 가정은 물론 중산층 가정에서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모가 전남에 거주하는 대학생, 전남에 주소를 둔 전남지역 대학 재학생

연 80만원(대출금리 7.3%) 가량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승자 의원은 "지금 시대에 학자금 대출금리는 7.3%에 이르고, 저소득 가정에 지원하는 저리 1·2종 역시 각각 3.3%, 5.8%에 달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으로 지역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이자 를 뒷내 학업을 포기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전남 인구 유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의회 진선기 의원(민주·북구1)도 오는 6월 제179회 임시회에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곡물 가공공장·연수·숙박시설, 경비행장

투자 협약 체결



전남도는 4일 오후 도청 서재필실에서 박준영 도지사와 백옥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관련 기업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관광숙박 및 연수시설, 경비행장, 곡물 가공공장 건립에 관한 투자협약식을 가졌다. (전남도 제공)

경비행장·곡물 가공공장·숙박시설 건립

전남도, 3천억원 투자 협약

전남도 관광산업의 새로운 전기

를 마련하게 될 경비행장 사업을 비롯해 관광·숙박·연수시설 조성과 곡물 가공공장 건립 등 다양한 분야에 서 3천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전남도는 4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박준영 도지사와 백옥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자본 투자가 절실히 관광·숙박 및 연수시설, 경비행장, 곡물 가공공장 건립에 참여할 6개 기업과 투자협

약식을 가졌다.

이날 투자협약에 따라 신안흑IRST는 1천200억원을 투자해 경비행장 활주로 및 부대시설을, 한국기업교육연구원은 여수금오도에 50억원을 투자해 기업연수시설 및 주말해양체험학습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도시와미래(주)는 신안 자은도에 598억원을 투자해 빌라형 리조트 26동을 짓고, (주)오로라리조트는 영암 학산면 일원에 400억원을 투자해 128

실 규모의 한옥호텔 1동과 한옥 관광펜션 30동 및 온천시설 등을 조성하게 된다.

또, 미국 애그리알파(AGRI-ALPHA)사는 광양항 동측 배후 물류단지 내에 미화 5천만달러(한화 약 650억원)를 투자해 곡물 가공공장 등 부대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며, (주)전남사료는 애그리알파사의 국내 협력업체로 참여해 지역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사료공급에 나선다.

/총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두동신 문민정사 날짜번호 : 제2008-1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모든 이들의 영원한 만족과 편안

무등산 문민정사

극락전 납골당이 있습니다

2009년 5월에 개장하실 분들은 예약을 서두르십시오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벌초를 하지 않아 황폐화된 묘, 때가 벗겨진 묘, 동그리를 거치며 흙이 된 묘, 개인이기주의의 만연과 전통적인 접두의식 및 친족, 이웃 간의 상호부조의식 해이로 전국 무연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 비반한 자연재해로 인한 유실과 훼손 여름철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인한 묘지 유실과 훼손은 전국적으로 해야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묘지유실은 물론이고 심지어 시신마저도 유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사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본 사람들은 봉분 속을 보고 경액을 긁지 못합니다. 이승보다 더욱 편안해야 할 시신이 나무 뿐리와 별레, 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장례법 조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모셔 거친 자연환경과 천자지변 속에 두고 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납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민정사 주지 함장

